

그러나 나는

미가 7:7-10

요즘 스미스채플 영어예배에서는 소선지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권씩 순서대로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세상속에서 선지자로 살아가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주일은 미가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전에 영어로 선포했지만 이곳에서는 한국말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실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요나서**를 선포했습니다. 요나서는 예언서로 분류되어있긴 하지만 다른 예언서와는 다르게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담긴 말씀의 깊이는 깊고도 놀랍지만요.

딸 주혜가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아빠, 지금까지 한 소선지서 설교 중에 최고였어요!”

네, 제 집에 설교 평론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는 다시 **예언서의 언어**로 돌아옵니다.

예언서의 언어는 쉽지 않습니다.

시적 언어, 은유, 상징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때로는 암호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이번 주는 미가서와 꽤 오래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며 또 읽었습니다.

“주님... 미가서를 통해 스미스채플에게 말씀하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묻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 번도 넘게 읽으니, 그제야 미가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눈물의 사람, 부서진 마음의 사람,**
백성의 고통을 몸으로 느낀 사람입니다.

그는 부패한 권력자들을 보았고, 억울하게 짓눌리는 이웃을 보았고,
자기 고향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아마 그런 세상을 보며 이렇게 탄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니까 미가는 단순히 “심판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예언은 바로 그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가서 1 장 1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 시대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였다.”

미가는 세 왕들에 걸친 시간 즉, **약 50 년** 동안 사역한 인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레이건, 클린턴, 조지 W. 부시, 오바마를 거쳐 지금까지 목회하는 목회자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정치도 변했고, 문화도 변했고, 윤리도 변했고,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빠지는 방향**이었습니다.

미가는 **호세아, 아모스**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선지서를 다룰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적이었지만 **의롭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정의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께 거창한 제사는 올려드렸지만, 정작 가난한 자는 무시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 “내게로 돌아오라!” (호 14:1)
-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호 6:6)
- “정의를 물 같이 흐르게 하라!” (암 5:24)

그리고 또다시 **미가**가 등장해 같은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려줍니다.

먼저, 미가가 누구인지 생각해봅시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어떤분인가?” 입니다.

미가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대단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구요,

25 마일 떨어진 시골 **모레셋**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목사님 같은 분이지요.

그가 살던 곳에는 당연히 농부, 노동자, 약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부자들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는지, 또 판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돈의 하수인이 된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 3:1-2, 메시지 성경) **“야곱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너희는 정의에 대해 눈곱만큼이라도 아느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너희, 너희 직무설명서에는 과연 정의 항목이 있더라도 한 것이냐? 너희는 산 채로 내 백성의 가족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 낸다. 너희는 그 뼈를 바수고 살을 썰어서, 그릇에 던져 넣고 국을 끓여 먹는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미가 3:5 (메시지 성경):

“사례금을 두둑이 받고 배불리 대접받을 때면, 예언자들은 이렇게 설교한다. ‘인생은 아름답도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나 사례금을 받지 못하거나 인기를 끌지 못하면, 그들의 설교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로 돌변한다.”

문제는 지도자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가는 말합니다. “반듯한 사람,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바르게 사는 사람, 씨가 말랐다.”

(미가 7:1-2, MSG) 온 나라가 각자의 눈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지요. 진정한 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6:16):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았으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 아합 같다”라고 하시면 그건 **최악의 모욕**입니다. 왜냐구요?
아합은 바알 숭배를 퍼뜨리고, 폭력과 음란을 조장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의인을 박해한 왕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심판이 단순히 “영적인 경고”가 아니라
미가에게는 “실제”가 됩니다.

왜냐면, 당시 초강대국인 **아시리아 제국**이 여러 차례 그들을 침략한 겁니다—먼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침공은 기원전 734–

732 년에(디글랏빌레셀 3 세에 의해) 있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갈릴리의 많은 성읍들이 함락되었고(열왕기하 15:29),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조공 국가(통제받는 국가)가 되었지요.

그 후 또 다른 침공이 기원전 725–723 년에(살만에셀 5 세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제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구요, 그리고 그로부터 1 년 후, 기원전 722 년에—(이 년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사마리아가 완전히 함락되었고, 그 결과 북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 후 **701 년**,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미가가 살던 **유다 땅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46 개 성읍이 파괴되구요, 20 만 명의 포로가 생기고, 미가의 고향 모레셋도 함락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1 장 14 절에서 미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레셋 가드여, 작별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땅이 침략자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울 것이다... 여우처럼 울고 타조처럼 목놓아 울 것이다...” (1:8)

그의 마음은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바로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해서 예언자적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바로 내 눈에 눈물이 있는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린적 있는가?

더럽고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울어본 것이 언제가 마지막인가?

세상의 불의와 상처를 볼 때 내 마음이 찢겨지는 아픔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있는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렇다고 미가서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으로 끝납니다.

왜입니까?

세상이 밝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미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고, 긍휼로 가득하며,

멸망시키기보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펼치고 약속을 이루시는데 **바로 “남은 자(remnant)”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절대 다수를 통해 일하시지 않은것을 보게 됩니다.
늘 소수의 사람, 남은 자들, 무릎 꿇지 않은 몇몇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다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꺼 같습니다.

바다는 96.5% 물과 3.5% 소금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소금이 **바다 전체를 살립니다.**

소금이 없다면 바다는 썩고, 생명은 죽고, 해류는 멈춥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3.5%의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붙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가서에서 이런 남은자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은 자를 다시 모으겠다.”

“(그들을) 다시 양 떼처럼 많이 하겠다.”

“왕이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리고 미가 4 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틀거리는 자를 다시 부르겠다.”

“상처입은 자를 다시 세우겠다.”

“그들이 강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남은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부서진 자, 절뚝거리는 자, 홀대받는 자, 어떻게 어떻게 기어이 살아남은 자가 남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미약한 존재들, 존재감 없는 사람들을 통해 이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작은 남은 자 공동체에서 구세주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미가 5:2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700 년 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나라가 무너지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본 것입니다. 남은 자는 계속될 것이고, 남은 자의 땅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것을 사용하시는줄 믿습니다.

이제 미가서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해봅시다. **“그러나 나는(But as for me).”**

미가서에는 “그러나 나는”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미가 3:8 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채워졌다.”

주변이 타락해도—

지도자들이 무너져도—

백성이 우상에 빠져도—

“그러나 나는... 진리 위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영성입니다.

두번째는 미가 7:7 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미가 7 장은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묘사합니다. 믿을 만한 친구도 없고, 신실한 사람도 없고, 가족 간에도 서로 공격하고, 집안에서 원수가 생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6 절입니다.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34-36 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마 10:37-19)

예수님의 포인트는 자신을 따르는 길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남은자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미 7:7) “어떤 댓가가 따르다고해도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몇 구절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28-31,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께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합니다. **주님을 따르면 사람들의 인정을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 잃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찰스턴의 Exponential 훈련에 갔다왔지요. 글로벌감리교회 세계 연회 연합으로 19 명의 인원이 모여서 GMC 의 미래, 지역 교회의 미래, 교회 배가운동의 미래를 듣고 논의했습니다. 저희 버지니아 연회에서는 저를 포함해 8 명이 참석했었지요.

거기서 배운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5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1. 감소하는 교회 (Subtracting). 2. 정체된 교회 (Plateauing). 3. 성장하는 교회 (Adding). 4. 재생산하는 교회 (Reproducing). 5. 배가하는 교회 (Multiplying)** 대부분의 미국 교회는 1-2 단계 입니다.

3 단계까지 가면 할렐루야지요. 4-5 단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3 단계(성장)”만 바라봅니다. 더 큰 건물, 더 많은 사람, 더 안정된 조직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3 단계를 건너뛰면 어떨까? 바로 4 단계, 5 단계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수는 없을까?” 다시 말하면, 숫자보다 **열매**에 집중하는 교회. 큰 교회가 되거나 살아남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는게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에 집중하는 교회.

그러자 진짜 질문들도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교회 재정은요? 작은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큰 건물 없이 배가 운동이 정말 가능한가요?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Movement)은 절대 군중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소수,

즉 남은 자(Remnant)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내년도 계획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찰스턴에서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6 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밥도 줍니다. 맛있는 걸로요.** 여러분 모두가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미가는 이렇게 노래하며 책을 마칩니다.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Who is like YHWH?”

미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붙들며 그의 예언자적 선포를 마무리합니다.

미가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며,

노여움을 오래 품지 않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미 7:18-19)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 죄와 함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자유하다. 참으로 자유하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대중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다수가 아니라

남은 자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이런 고백을 우리 마음에서 결단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그러나 나는—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 “그러나 나는—공회를 선택하겠습니다.”
- “그러나 나는—정의를 행하겠습니다.”
- “그러나 나는—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 “그러나 나는—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 “그러나 나는—스미스채플과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부서진 마음, 눈물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그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미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눈물과 아픔과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수가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맞닿게 하시고,

정의와 자비와 겸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멀어진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있으나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따뜻하고 선명하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스미스채플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세우시고,

작지만 신실하고, 작지만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